

불심시심 <61>

신선이 노년 못

仙遊潭在海山巖 (선유담해산암) 선유담 바다 산 깊은 곳에 있어  
 跨鶴仙人幾歲遊 (과학선인기세유) 신선은 학을 타고 몇 해나 놀았나  
 石痕至今留藥臼 (석흔지금유약구) 돌 틈에 지금까지 남은 약 방아터  
 靈源從古喚銀鉤 (영원종고영은구) 신령한 물줄기 옛부터 은고리인 양  
 靈源從古喚銀鉤 (영원종고영은구) 빛나다  
 煙雨晴時曉雨 (연우청시효우) 이지방이로 감싸인 불방울 개었다 비  
 涼侵深松夏自秋 (량침심송하자추) 가을  
 誰借長生丹法去 (수차장생단법거) 누가 장생술의 연단법을 빌려갔기에  
 滿橋寒月照清球 (만교한월조청구) 병에 가득히 싸날 한 달 맑은 옥으로  
 (만방한월조청구) 비추네

위 시는 풍계대사의 관동 팔경 중에 있는 <선유담(仙遊潭)>이다. 못의 이름이 말하듯이 신선이 노닐었다. 그러기에 시의 내용도 신선에 관한 소재로 일관되어 있다.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에 있는 못이다. 이름은 선유담이지만 신선은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볼았던 신선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니 그 붙여진 세월은 언제였던가. 선인이 여기로 내려왔다면 무엇을 타고 왔을 것인가. 그는 분명 학을 타고 왔을 것이고, 다시 학을 타고 갔을 것이다.

신선에게는 장생불사의 영약이 있다 하니, 지금 저 돌 틈에 보이는 흔적은 그들이 이 선약을 장만하던 절구터임이 분명하다. 세속에서 신선을 동경하는 가장 큰 이유도 어쩌면 이 장생의 영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신비성에 있을 것이니 절구 모양으로 패인 바위만 보아도 신선의 영약을 연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못이 있기 위해서는 못을 형성하는 물 근원이 있어야 하니, 이 신선이 노닐 수 있는 못의 물 근원이라면 그 근원 또한 신령할 것이요, 그 신령한 근원은 예사로움이 아니라 저 은하수의 근원에서라도 찾아야 할 신령함이다. 지금 이 선유담의 수원은 이러한 신령의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이지방이로 휩싸인 숲 속의 물방울 개이는 듯 하다가도 다시 이슬비처럼 촉촉히 숲을 적고, 깊은 숲속에서 이는 서늘한 바람은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 하더라도 여음이 아닌 가을날의 서늘함이다. 시에서 보인 '저절로 (自)라 한 한글자가 참으로 매력적이다. 여음이 저절로 가을이 되어 싸날한 것이다. 역시 신선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용어이다.

신선의 놀음이라 한다면, 무니 무니 흥여도 장생의 영약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선유담에는 약방아의 흔적만 있을 뿐 약은 없다. 누가 이미 빌려간 것인가. 왜 빌려갔다 하였을까. 빌림은 갚음이 전제된 것이니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약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오늘 밤의 선유담은 싸늘한 달만이 비추는 초추함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역시 신선은 달밤에 학을 타고 내리는 기대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한다. "지금까지 불교음악들이 대부분 피아노 반주에 맞춘 노래에 치우쳐서 비교적 단조로운데 오케스트라를 반주로 하는 대규모 불교교성곡으로는 첫 작품인 '회당'으로 불교음악의 영역의 시련기인 6.25, 그리고 일 반에 드는 전 생애가 드라마틱한 교성곡으로 표현된다. 2백여 연합합창단과 70여명 오케스트라가 동태한 진각종 창종 50주년이 되는 내년 기념일에

내년 진각종 50주년 기념일에 공연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20여곡 작곡

역을 넓히고 수준높은 음악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인다. 작사는 사인인 장지현씨(진각종 LA 불공심인당 주교), '회당'은 모두 4악장으로 구성 있다. 제1악장 탄생 2악장 깨달음 3악장 교회의 빛 4악장 열반으로, 대중사의 깊은 시절의 고뇌와 방황, 깨달음의 과정, 회당대중사가 민중을 교화하는 진각종 창종 초기와 민족

정식으로 초연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씨가 작곡한 찬불가는 대략 20여곡, 대표곡 '우리도 부처님같이' 외에 사철도량 현공심때 부르는 '현공불사의 노래'와 불교방송개국기념 전국 찬불가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사월이라 초파일은'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경숙 기자

손규상 대종사 생애 음악으로 조명

오케스트라 교성곡 '회당' 완성한 이달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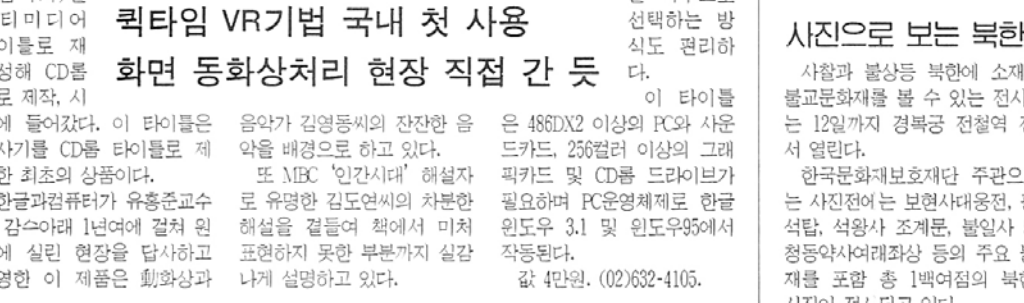


승가의 일상생활속에 스며있는 치열한 구도행이 해맑은 풍자승으로 형상화돼 천진불심(天真佛心)을 느낄 수 있는 전 사회가 가을 초입을 장식한다. 지난해 특유의 화풍으로 그린 동승그림을 선보여 연인원 1만5천여명이 보고 가는데 큰 반향을 일으킨 원성스님(중암승가대 복자학과 2년)이 한국일보사 기획으로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96 동승전'을 개최한다. '그리울 때면' '꿈' '선방' '삼경 종소리 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등과 부처님날대기가 맞고 천진하면서 익살스런 동승의 모습으로 표현된 1백여작품이 전시된다. "그림으로 전법하고 싶습니다. 동승의 여러 모습을 통해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전하고

원성스님 '동승전' 천진불심 볼 기회

13~22일 백상기념관서 '선방' 등 100여점 전시

수행자의 구도의지와 불림문자 언어도단의 경지를 이삼전심이 되듯 자연과 느끼는 기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성스님은 종이재질과 채색을 이용한 여백의 미를 한층 살려 동승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통해 수행자들의 선적 세계를 구체화했다. 자연과 사물 무 뜻 산 하를 등 자연과 인간의 결합을 자유분방한 조형언어로 창출 자연과 인간이 돌이



원성스님작 '마음 한 점 고요하니 無明은 사라지고'.

문화소식

이문자씨 '춤-회두' 공연

이문자씨(부산대교수)의 춤-회두 공연이 오는 5일 부산문화회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춤-회두연구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 3막 8장으로 모 든 언어와 상징을 넘어서 큰 깨달음을 마하무드리를 표현하는 무대다. 중요유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인 이문자씨는 "마하무드리는 인도 의 수행자 티로바가 깨달음을 얻은 후 티벳으로 건너가 제자 나로빠를 위해 읊은 내용을 말하며 이중 심층을 풀어 춤과 나 절대자유를 향하여 마음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번 공연의 의미를

흥기삼씨 '문학사외...' 출간

흥기삼교수(동국대 한국어문학부)가 한국문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통해 우리문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 <문학사외 문학비평>을 펴냈다(해남출판사 펴냄). 이 책에서 흥교수는 비평적 관점에서 문학사기술의 원칙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 가와 전통단절론에 대한 이론적 극복과 함께 그것을 실증적으로 지원하는 텍스트 해석의 구체적인 제곱이라는 문학사적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진각종의례용 CD 제작

진각종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신행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서원가(법요의례용) CD를 제작 배포한다. 대구 금강합창단(지휘 배해근)이 녹음한 이 CD에는 삼귀명 오대사원가 종조열반절의 노래 보현행원 등 총 18곡이 수록됐다. 진각종 산하 신행단체에 무료배포 (02)913-0751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CD롬 나왔다

범국민적인 문화유산 답사 붐을 조성한 스테디셀러인 유홍준교수(영남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작비평사 펴냄)가 멀티미디어 CD롬 타이틀로 출시됐다. 한글과컴퓨터(대표 이찬진)는 최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멀티미디어 타이틀로 재구성해 CD롬 형태로 제작, 시

익타임 VR기법 국내 첫 사용

특히 가상현실기법 중 하나인 '익타임VR' 기법을 국내 최초로 사용, 마치 사용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인물 유적 역사 등에 관한 1백70여점의 관련사진을 수록한 용어해설도 제공한다. 지도를 보면서 직접 답사할 곳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식도 편리하다. 이 타이틀은 음악가 김영동씨의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MBC '인간시대' 해설자로 유명한 김도연씨의 차분한 해설을 곁들여 책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부분까지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다. 값 4만원. (02)632-4105.

시진으로 보는 북한시찰

사찰과 불상 등 북한에 소개한 주요 불교문화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12일까지 경복궁 전철역 전시장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사진전에는 보현사대웅전, 팔각3층 석탑, 석왕사 조계문, 불일사 5층석탑, 청동약사여래좌상 등의 주요 불교문화재를 포함 총 1백여점의 북한문화재 사진이 전시 되고 있다.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공과 기술로써 각 사찰의 범당을 정밀하여 천 년을 기려 남을 정성을 다 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택 협정

전도 설계사 : 시왕전, 불단  
 속도 구분암 : 천불전, 단립, 산신각, 문막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립, 범상등회  
 설악산 오세암 : 원불전  
 삼각산 인화정사 : 천불전, 단립회 등  
 구로동 원운사 : 불단, 문막  
 불교예대인 : 불단, 문막, 경탁회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립, 천불의 다수 사찰 봉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할열방지제 (갈라짐 방지)  
 ■ 木材방충·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동동 56-11  
 상원B/D(을지로 27가)

전화 : (02)266-2629, 팩스 :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대진(전승)공예사

한 드폰 011-282-4609  
 가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正植 協正

**절터최적지**

장소 : 경남 하동군  
 황천면  
 하동 진주 사씨  
 지리산 줄기,  
 양질의 지하수  
 도로,  
 토목공사 완료

평수 : 11,460평  
 (평당 10,000)

연락처  
 0346)594-4974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품목 |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공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 불교 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학 생 모 집**

-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 ◆ 중무명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법사·유아놀이사·상담사) 취득가능  
 2. 소형 버스 통학 가능  
 3. 중북 리산에서 원2회 강의 (교육청인가 있음)

TEL 02)931-6075-6  
**만대교회대학원**

**탁자, 단립, 범상, 문짜,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함천(해인사) 대적광전 범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문짜 문짜  
 • 서원(백화사) 범상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용성(삼보사) 대웅전 문짜  
 • 화진(법장사) 대웅전 문짜  
 • 충주(삼익사) 대웅전 수미단 범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짜 단립  
 • 포진(약천사) 대웅전 문짜 단립  
 • 단양(선진사) 대웅전수미단 범상경탁  
 • 서울(해인사) 회관 불사, 그의 다수 사찰

**전원주택 부지**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 준농림(전+담) 평수: 114평(전용허가필)
- 강남형(집앞까지 포장완료)
- 서울에서 현재 1시간 10분거리
- 포근하고 아늑한 전원후 전원마을
- 금액 : 2900만원

**투자성 좋은 전원주택지**

- 경기도 양평군 단립면
- 지목: 준농림 전 평수: 155평(전용허가필)
- 마을앞 전방 150m에 강이 흐름
- 서울에서 1시간 10분거리
- 투자성이 매우 좋음
- 금액 : 3,700만원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TEL : (02) 420-5474~5  
 연락처 FAX : (02) 413-7295 불자 안내진 합장  
 B. B : 012-272-0025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